

한국과 미국의 여성 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미 소비자 선호도 비교연구

안 춘 순 · 이 승 희* · 양 윤** · 임 숙 자***
Sharron J. Lennon**** · Sue M. Parker*****

인천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The Ohio State University, Professor,
*****University of Alabama, Professor Emeritus

A Comparative Research on Korean and American Consumer's Preference on Selected Korean and American Textiles for Women's Formal Wear

Cheunsoon Ahn · Seung-Hee Lee* · Yoon Yang** · Sook-Ja Lim***
Sharron J. Lennon**** · Sue M. Parker*****

University of Inchon, *University of Ulsan,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2000. 5. 2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fabric preference of formal wear attire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female consumers. For such purpose, fabrics which were used in the women's formal wear market of Korea(n=25) and U.S.A.(n=25) in the 1999 spring/summer season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fabric converters of the two countries. The respondents were comprised of 50 Korean and 50 U.S.A. female volunteers in the age group of 20s and 40s. A 5 point Likert Scale was used to evaluate the degree of the "like" preference of fabrics. T-test and Spearman's rho statistic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1. Korean 20s and American 20s preferred Korean fabrics but Korean 40s and American 40s preferred U.S.A. fabrics.
2. Generally, the 20s preferred greyish or tone down color, whereas the 40s preferred both greyish and colorful fabrics.
3. Koreans preferred melange colored fabrics as well as solid color fabrics.
4. Americans liked knit fabrics as well as woven fabrics for formal wear and 20s liked compact density fabrics compared to the 40s age group.

Key words: formal wear fabrics, Korean · American, fabric preference, fabric characteristics;
정장용 소재, 한·미, 소재 선호도, 소재 특성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연구배경

의류패션에 있어서 옷의 디자인이나 스타일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소재 즉 원단이다. 소재는 착용감과 운동성, 쾌적성 등 기능적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옷의 외관상 아름다움에도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이순홍·손희정, 1994). 특히 최근과 같이 디자인의 경향이 미니멀리즘적인 요소를 띄는 현실에 있어서 소재의 역할은 디자인의 성패와 소비자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소재는 내수판매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판매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원단을 국내에서 생산한 후 이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우리 나라 원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단과 외국의 원단을 함께 분석하여 서로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원단에 대한 양국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로 다양한 변수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의류소재의 특성상 시중의 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다룬 선행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중 소비자 선호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상표 선호도나 의복이미지 선호도를 다루고 있으며(차은정·박혜선, 2000; 김영인·고애란·홍희숙, 2000; 신상무·류미령, 2000; 이정욱, 2000; 외 다수),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소재의 물리적 특성 자체를 연구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다(이은주·조길수, 2000; 이정순·신혜원, 2000; 신경인·김종준, 2000; 이미경·류숙희, 1998; 외 다수). 선행 연구 중 소재 실물관찰을 통해 소재 종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연구한 논문으로 나영주·정혜원(1999), 김춘정·니영주(199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내의나 넥타이용 직물과 같이 소재의 종류가 비교적 제한된 품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케팅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

반 패션의류에 대해서는 소재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각 소재의 특성이 복잡미묘함으로 인해 소재 실물특성과 소비자 선호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의복행동을 연구한 논문들도 양국 소비자를 비교한 것은 최미성(1999)과 이정욱(2000) 외에는 많지 않으며 주로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연구 (김미영, 1999; 이승희·Stanforth·Lennon, 1999)이거나 한국인 혹은 미국인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중 최미성(1999)은 한국과 미국의 사이클 선수들이 선호하는 사이클복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이클복의 소재 특성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저지(jersey) 원단에 대한 선호, 비선호 경향을 묻고 그 외에는 주로 스타일에 치중한 선호경향을 조사하였다. 앞 논문의 결과 한국인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지 원단의 사이클복에 대해 촉감이나 fit 면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있으나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지 원단의 사이클복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는 최미성(1999)의 논문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미 소재 선호도 비교문제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여성 정장과 사이클복은 의류품목상 큰 차이점이 있어 결과의 대등한 비교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과 소재가 중시되는 오늘날의 여성복 시장 현실을 볼 때 의류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의의류 소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이며,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와 주변국 소비자의 소재 선호도를 조사하는 일은 의류의 국제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와 밀접한 의류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여성 정장용 원단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한·미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논문에서 여성 정장이란 자켓과 스커트 혹은 자켓과 팬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슈트(suit)류에 그 의미를 한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 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기초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 의류 브랜드의 경쟁력을 함양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1. 소재 입수와 선정

한국과 미국의 원단업자로부터 1999년도 spring/summer season에 유행한 여성 정장용 원단을 한국 50종, 미국 25종 협찬 받았다. 한국 원단은 주로 여성 정장용 원단을 직접 생산·유통하는 천마섬유, 프리비전, 인터텍스타일, 한수섬유, 옥원섬유 등의 소재 컨버터로부터 협찬 받았으며 미국 원단은 미국내 의류업체에 원단을 직접 공급하는 원단업체로부터 해당 원단들을 협찬 받았다. 미국 내 각지 위치한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수집하는 일은 Fabric Store를 경영하는 개인기업가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 원단 25종은 그대로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한국원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5종을 선정하였다.

한국 원단 50종은 사용된 섬유와 색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중 25종을 stratified sampling 방법에 입각하여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50종 원단 각각을 black, grey, pink, blue, green, white, beige 등의 7개 색상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50종 원단 전체에서 관찰되는 섬유혼용의 조합(예: 양모 100%, 양모/폴리에스테르, 양모/나일론/레이온 등)을 모두 나열하고 각 혼용조합의 빈도와 50종 원단 중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다음 각 색상군의 빈도에 근거하여 50개 원단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고 같은 비율을 25개 샘플 수에 적용하여 각 색상 당 몇 개의 원단을 선정할지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4인의 패널이 50개 원단의 각 색상분류군에서 결정된 수량의 원단을 선정하였다. 한 색상군 내에서 원단을 선정할 때에는 위에서 얻어진 섬유혼용의 조합별 빈도를 참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25개의 한국원단은 색상과 섬유혼용이 당초의 50개 원단의 색상과 섬유혼용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자발적으로 survey에 참여한 한·미의 20대와 40대 여성 각각 25명씩이었으며 20대는 여대생, 40대는 사무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전업주부를 포함하였다. 20대와 40대 연령 그룹의 선정배경은 20대는 패션에 대한 민감도, 40대는 구매 경제력에 근거를 두고 두 그룹간에 소재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3. 소비자 선호도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서울과 미국 Ohio주 Columbus시에서 1999년 5월과 7월초 사이에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우선 무작위로 섞인 양국의 원단 스와치(10cm x 10cm) 총 50장을 정장용 옷감으로 선호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좋다(like),' '잘 모르겠다(neutral),' '싫다(dislike)' 카드에 분류하였다. '좋다'와 '싫다' 카드에 분류한 원단에 대해서는 Likert 5점 Scale에 입각하여 1이 '약간 좋다,' 5가 '매우 좋다'로 하여 선호도를 점수화하였다. 원단의 평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좌우 상하로 잡아당겨 보는 등 여러 감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한 원단별 관찰시간이 10초를 넘지 않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선호척도를 매기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주관식 문항에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본고에서는 '좋다(like)' 카드에 분류된 원단들에 대한 선호도 점수와 주관식 응답의 결과만을 다루고자 한다.

4. 원단의 기초 특성 분석

총 50종 원단들의 기초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용섬유. 원단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섬유혼용률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무게. Chemical Balance를 이용하여 10cm×10cm 크기 원단의 무게를 10⁻³g까지 측정하였다(KS K 0514).

두께.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원단의 두께를 10⁻²mm까지 측정하였다(KS K 0506).

밀도. 밀도분해경을 이용하여 1inch당의 경사와

위사의 울수를 구하고 '경사수×위사수'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시에는 경사 울수와 위사 울수의 합('경사수+위사수')을 원단의 밀도로 하였다(KS K 0511).

조직. 원단의 조직을 직물과 편성물, 삼원조직과 편성조직, 변화조직 중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색상. 원단의 색상을 우선 외관상 구분에 따라 솔리드(solid), 메란지(melange), 스트라이프(stripe), 체크(check)로 나누었으며 Minolta 300 Colorimeter를 이용하여 색의 삼자극치 XYZ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구한 x, y, z 좌표값을 이용해 원단 그룹별로 Chromacity Diagram을 제작하였다(한국섬유공학회, 1992; 정원규·장두상·서보영·박상주·조인술·조규민, 1997; 박은주, 1998). 여기서 solid는 단일 색으로 염색된 후염물을 말하며 melange는 희끗희끗한 색상으로 주로 혼방섬유를 후염하여 얻어진 염색물을 말한다. Stripe와 check는 모두 선염물이며 stripe는 색사를 경위사 중 하나에 넣은 스트라이프 효과, check는 경위사 모두에 여러 색상의 색사를 넣어서 짠 check직물을 말한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9.0과 MS EXCEL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 그룹간의 선호도 점수차이와 한·미 원단간의 기초 특성의 차이는 t검정을, 응답자 그룹간의 Likert score에 의한 소재 선호도 순위의 비교는 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을 실행하였다(홍두승, 1987).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Kassarjian, 1977; Paoletti, 1980; 안춘순, 1996) 우선 표현 어휘별로 빈도를 나타내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 색상, 촉감, 기능성 및 물성, 광택, 조직, 문양(패턴), 그리고 분위

기의 7개 표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원단의 기초 특성 분석

사용섬유. 한국 원단은 순모와 양모 혼방이 25종의 원단 중 64%에 달했으며 폴리에스테르 100%와 PET 혼방원단이 40%, 레이온 혼방원단이 48%, 면 100% 및 면혼방원단이 20%를 차지하였다(Table 1). 미국 원단 중에는 순모제품이 없었으며 양모가 혼방된 경우가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폴리에스테르 100%와 PET 혼방원단이 56%, 레이온 혼방원단이 28%, 실크 혼방원단이 24%, 면 혼방원단이 20%였다. 특히 미국 원단 중에는 한국 원단에서 볼 수 없는 레이온 100%, 실크 100% 필라멘트사로 짜여진 실직한 원단들이 있었다. 한국 원단 중 전체의 16%에는 스판덱스사가 혼방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라미와 린넨섬유는 미국 원단에서만 보였다.

무게·두께·밀도. 일부의 한국 원단(28번과 45번 원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 원단이 미국 원단보다 가벼웠다. 두께 측정치의 경우 한·미 원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 원단은 28번과 45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0.2~0.5mm의 두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위사'의 밀도로 보았을 때 한국 원단은 대체로 미국 원단보다 조밀하게 짜여졌으며 34번 원단은 특히 양국 원단 중 눈에 띄게 조밀한 밀도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미국 원단은 31번 원단을 제외하고는 밀도가 50~200이하로 한국 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글게 짜여진 것으로 보였다. 무게, 두께, 밀도 측정치에 대한 t검정 결과 양국 원단간에 무게와 밀도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조직. (표 생략) 한·미 원단 모두에서 평직이 가

Table 1. Types of Fiber Mixture among Korea and U.S.A. Fabrics

Fiber Country	wool + other	polyester + other	rayon + other	nylon + other	cotton + other	silk + other	Linen/Ramie +	spandex included
Korea	16(64)*	10(40)	12(48)	7(28)	5(20)	0	0	6(24)
U.S.A.	4(16)	14(56)	7(28)	0	5(20)	6(24)	4(16)	0

*number in () is the percentiles.

Table 2. Result of T-Test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Korea and U.S.A. Fabrics

Statistics Property ¹	Fabric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t	df	sig. ¹
Weight(g)	Korea	25	1.6992	0.5741	-2,042	48	0,047*
	U.S.A.	25	1.9960	0.4450			
Thickness(mm)	Korea	25	0,3829	0,3829	-0,516	48	0,608
	U.S.A.	25	0,4029	0,4029			
Fabric Density	Korea	25	201,88	100,33	4,200	48	,000*
	U.S.A.	25	111,32	39,48			

¹values with *are significant at $\alpha=0.05$

장 많이 보였으며 한국 원단 중 8종(32%)은 니트 원단이었다. 한국 원단 중 직물은 52%가 평직이었으며 능직이 8%, 크레이프직이 8%였다. 미국 원단은 60%가 평직, 12%가 두둑(rib)조직이었으며 능직은 12%, 크레이프직은 8%, 도비류가 8%였다.

색상. 색상의 외관상 분류에서 한·미 원단 중 solid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 48%, 미국 56%) 한국 원단 중에는 이와 함께 melange계가 44%를 차지하였다(Table 3). 반면에 미국 원단 중에는 melange가 20%밖에 없었고 check원단은 미국원단 중에만 20% 있었다. Stripe는 한국 2개 원단, 미국 1개 원단 등 적은 수량 있었다. 한국과 미국 원단의 Chromacity Diagram은 Fig. 1와 Fig. 2와 같다. 한국 원단은 표준광 C의 좌표($x=0.3101, y=0.3165$) 부근에 몰려 있으며 따라서 무채색에 가까운 혼합 색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원단은

xy의 좌표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어 여러 순색에 근접해 있고 다양한 색상계열을 지닐 수 있다.

2. 소비자 선호도 분석

응답자 집단간 각 원단 그룹에 대한 선호 순위 비교. 먼저 양국 내에서 두 연령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 한·미 원단 전체 (Fabric Group=All)에 대해, 그리고 한국원단 (Korea only)과 미국원단(U.S.A. only)을 각각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은 모두 각국 20대와 40대 연령 그룹이 한국 원단에 대해 선호순위가 같음을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국 원단에 대해서는 rho값이 마이너스로 20대와 40대 간에 선호순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써 양국 내의 두 연령 집단간에는

Table 3. Color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U.S.A. Fabrics

	No. Visual	Korea																									
		1	2	3	4	6	8	11	12	13	20	21	22	25	26	28	32	33	34	35	36	37	38	45	48	49	
Korean Fabrics	Solid	▲			▲		▲		▲	▲	▲	▲		▲					▲		▲	▲		▲			
	Melange			▲		▲		▲					▲		▲	▲	▲	▲		▲			▲			▲	
	Check																										
	Stripe		▲																							▲	
	No. Visual	U.S.A.																									
		5	7	9	10	14	15	16	17	18	19	23	24	27	29	30	31	39	40	41	42	43	44	46	47	50	
U.S.A. Fabrics	Solid	▲			▲			▲	▲		▲	▲		▲	▲	▲	▲							▲	▲	▲	▲
	Melange		▲	▲		▲					▲										▲						
	Check							▲						▲						▲	▲		▲				
	Strip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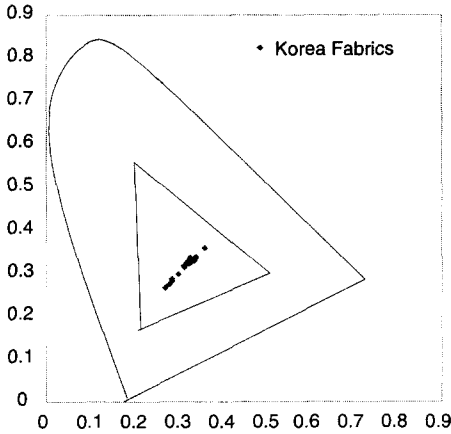


Fig. 1. Chromaticity Diagram of Korea Fab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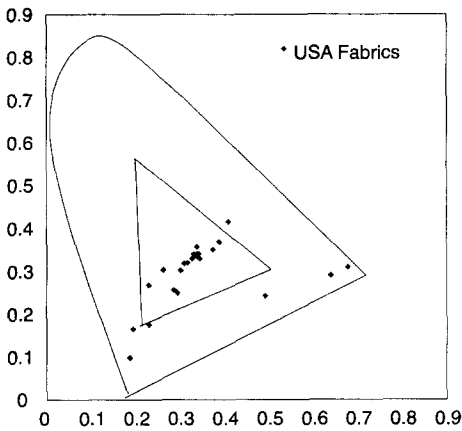


Fig. 2. Chromaticity Diagram of U.S.A. Fabrics

선호순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호 순위에 대한 분석은 한국 20대와 미국 20대간, 그리고 한국 40대와 미국 40대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고자 한다.

Table 5는 한국인 20대와 미국인 20대 간의 원단 선호 순위를 한·미 원단 전체(Fabric Group=All)에 대해, 그리고 한국원단(Korea only)과 미국원단(U.S.A. only)을 각각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한·미 원단 전체(Fabric Group=All)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한국 20대와 미국 20대 간은 Spearman's rho값(0.270)이 플러스로 선호순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p=0.058$). 반면에 한국 40대와 미국 40대 간은 rho값이 -0.299 로 선호 순위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으며 $p=0.03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원단과 미국원단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40대와 미국 40대 간에는 두 경우 모두 선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한국원단: $\text{rho}=-0.224$, 미국원단: $\text{rho}=-0.566$) 특히 미국 원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03$). 한편 한국 20대와 미국 20대 간에는 미국원단에 대해서 선호순위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p=0.015$ 로 매우 높은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Table 5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20대와 미국 20대의 선호도 순위는 일치하는 반면 한국 40대와 미국 40대의 선호도 순위는 차이를 보였다.

그룹간의 평균 선호도 점수를 t검정을 이용해 비교한 결과 미국원단에 대한 한국 20대와 미국 20대

Table 4. Mean Differences and the Rank Comparisons of the "Like" Preference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within Koreans and Americans

Population Compared	Fabric Group Compared	T-Test				Spearman's rho	
		Mean Difference	t	df	sig. ¹	rho	sig.
Korean 20s/ Korean 40s	All	-0.156	1.765	49	0.084	0.162	0.260
	Korea	0.044	0.369	24	0.715	0.435	0.030*
	U.S.A.	-0.357	-1.752	24	0.092	-0.053	0.801
American 20s/ American 40s	All	-0.2865	-2.862	49	0.006**	-0.177	0.219
	Korea	0.295	3.048	24	0.006**	0.420	0.036*
	U.S.A.	-0.868	-4.348	24	0.000**	-0.292	0.157

¹ : significant at $\alpha=0.05$, **: significant at $\alpha=0.01$

Table 5. Mean Differences and the Rank Comparisons of the "Like" Preference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Population Compared	Fabric Group Compared	T-Test				Spearman's rho	
		Mean Difference	t	df	sig. ¹	rho	sig.
Korean 20s/ American 20s	All	-0.552	-3.653	49	0.001**	0.270	0.058
	Korea only	-0.923	-4.390	24	0.000**	-0.136	0.518
	U.S.A. only	-0.180	-0.932	24	0.361	0.481	0.015*
Korean 40s/ American 40s	All	-0.682	-5.121	49	0.000**	-0.299	0.035*
	Korea only	-0.673	-3.547	24	0.002**	-0.224	0.282
	U.S.A. only	-0.691	-3.621	24	0.001**	-0.566	0.003**

¹*: significant at $\alpha=0.05$, **: significant at $\alpha=0.01$

의 비교를 제외하고는 그 외 모든 그룹간 비교에서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이 높은 선호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의 Mean Difference).

응답자 집단내 한·미 원단에 대한 선호 순위 비교. 각 응답자 집단별로 집단내에서의 한국 원단과 미국 원단에 대한 선호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 40대와 미국 20대는 rho값이 마이너스로 선호순위에 미약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Table 6). 마찬가지로 한국 20대와 미국 40대는 rho값이 플러스로 선호순위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Table 6). 한·미 원단에 부여한 선호도 점수의 평균값을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미국 20대의 경우 한국 원단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평균차 0.807) 미국 40대의 경우는 평균차 -0.355로 미국 원단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경우 모두 높은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t검정의 결과

미국인 20대는 한국원단을 더 선호하며 미국인 40대는 미국 원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차로 볼 때 한국인도 그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그룹별로 가장 선호하는 소재 조사. 응답자 그룹별로 선호척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즉, 가장 선호된 10개 원단의 선호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장 선호된 10개 원단을 볼 때 한국 20대와 미국 20대는 한국원단을 더 선호한 반면 한국 40대와 미국 40대는 미국원단을 더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선호척도를 매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자 그룹별 답을 요약한 것이다. 모든 응답자 그룹이 실루엣 표현성, 드레이프성, 강연성, 신축성, 두께, 중량 등의 원단의 기능성과 물성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색상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20대, 한국 40대, 미국 40대의 경우는 그 외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세련되거나 무난한 느낌 등 분

Table 6. Mean Differences and the Rank Comparisons of the "Like" Pre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fabrics in each population group

Population Compared	Fabric Group Compared	T-Test				Spearman's rho	
		Mean Difference	t ¹	df	sig. ²	rho	sig.
Korean 20s	Korea/U.S.A.	0.064	0.271	48	0.787	0.025	0.904
Korean 40s	Korea/U.S.A.	-0.337	-1.697	48	0.096	-0.290	0.160
American 20s	Korea/U.S.A.	0.807	4.379	34.979	0.000**	-0.011	0.957
American 40s	Korea/U.S.A.	-0.355	-3.091	48	0.003**	0.053	0.803

¹t values for either equal or unequal variances have been selected based on the F test.

²*: significant at $\alpha=0.05$, **: significant at $\alpha=0.01$

Table 7. Ranks of Mean "Like" Scores of Different Respondent Groups

K(◆): Korean Fabric U(◇): U.S.A. Fabric Fab#: Fabric Number

Population		Korean			American			20's			40's			Korean 20's			American 20's			Korean 40's			American 40's		
		K	U	Fab#	K	U	Fab#	K	U	Fab#	K	U	Fab#	K	U	Fab#	K	U	Fab#	K	U	Fab#	K	U	Fab#
Highest 10	10	◆		35	◇		14	◆			◆		24	◆		48	◆		20	◆		35	◆		28
	9	◆		49	◇		46	◆			◆		18	◆		4	◆		8	◆		32	◆		42
	8	◆		48	◆		34	◆			◆		41	◆		28		◇	10	◆		15	◆		45
	7		◇	17	◆		48	◆			◆		46	◆		32	◆		4	◆		40	◆		47
	6	◆		22	◇		10	◆			◆		30		◇	5	◆		48	◆		22	◆		25
	5		◇	19	◆		45	◆			◆		40	◆		19	◆		26	◆		49	◆		46
	4		◇	44	◆		35	◆			◆		17	◆		23	◆		35	◆		44	◆		41
	3	◆		32	◆		8	◆			◆		47	◆		1	◆		22	◆		30	◆		31
	2	◆		2	◆		50	◆			◆		15	◆		2	◆		50	◆		17	◆		14
	1		◇	43	◆		31	◆			◆		31		◇	43	◆		34	◆		27	◆		15

Table 8. Number of Responses in the Subjective Response Categories

Response Type	Frequency of Response			
	Korean 20s(N)	Korean 40s(N)	American 20s(N)	American 40s(N)
Color	21	16	24	24
Texture	18	14	7	14
Function/Physics	28	19	34	21
Luster	1	1	1	0
Structure	5	0	0	1
Pattern	2	3	8	2
Mood	14	16	4	8

위기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질감, 까슬까슬 하거나 시원한 느낌 등 촉감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소비자 선호도와 원단의 기초 특성과의 관계 분석

위에서 언급된 가장 선호된 10개 원단의 무게와 두께, 밀도 평균값을 응답자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 20대와 미국 20대, 한국 40대와 미국 40대 두 그룹 모두 t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Table 9). 가장 선호된 10개 원단의 조직은 전체 원단의 조직비율을 반영하여 평직이 가장 많았으나 미국 20대와 미국 40대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경우 니트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괄목

할만한 현상이었다(표 생략).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논의된 최미성(1999)의 결과와 비록 의류품목은 전혀 다르나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며 미국인의 니트소재에 대한 선호경향을 시사해 준다.

외관상의 색상의 경우 한국인은 연령그룹을 막론하고 solid계와 melange계 원단의 숫자가 비슷하였으나 미국인의 경우는 melange계보다는 solid계가 확실히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20대와 미국 20대 모두 check는 선호하지 않고 stripe는 어느 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40대는 stripe보다는 오히려 check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10개 원단의 그룹별 색의 3자극치를 비교한 결과 Fig. 3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20대는 주로 무채색에 가까운 혼합색 계열의 원단을 선호

Table 9. Group Differences for Different Fabric Characteristics

Population Compared	Physical Characteristics	t	df	sig. ¹
Korean 20s /American 20s	Weight	0,322	9	0,755
	Thickness	0,784	9	0,453
	Density	-1,041	9	0,325
Korean 40s /American 40s	Weight	-1,287	9	0,230
	Thickness	-1,057	9	0,318
	Density	0,654	9	0,530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40대는 순색에 었다.
 근접한 다양한 색상의 원단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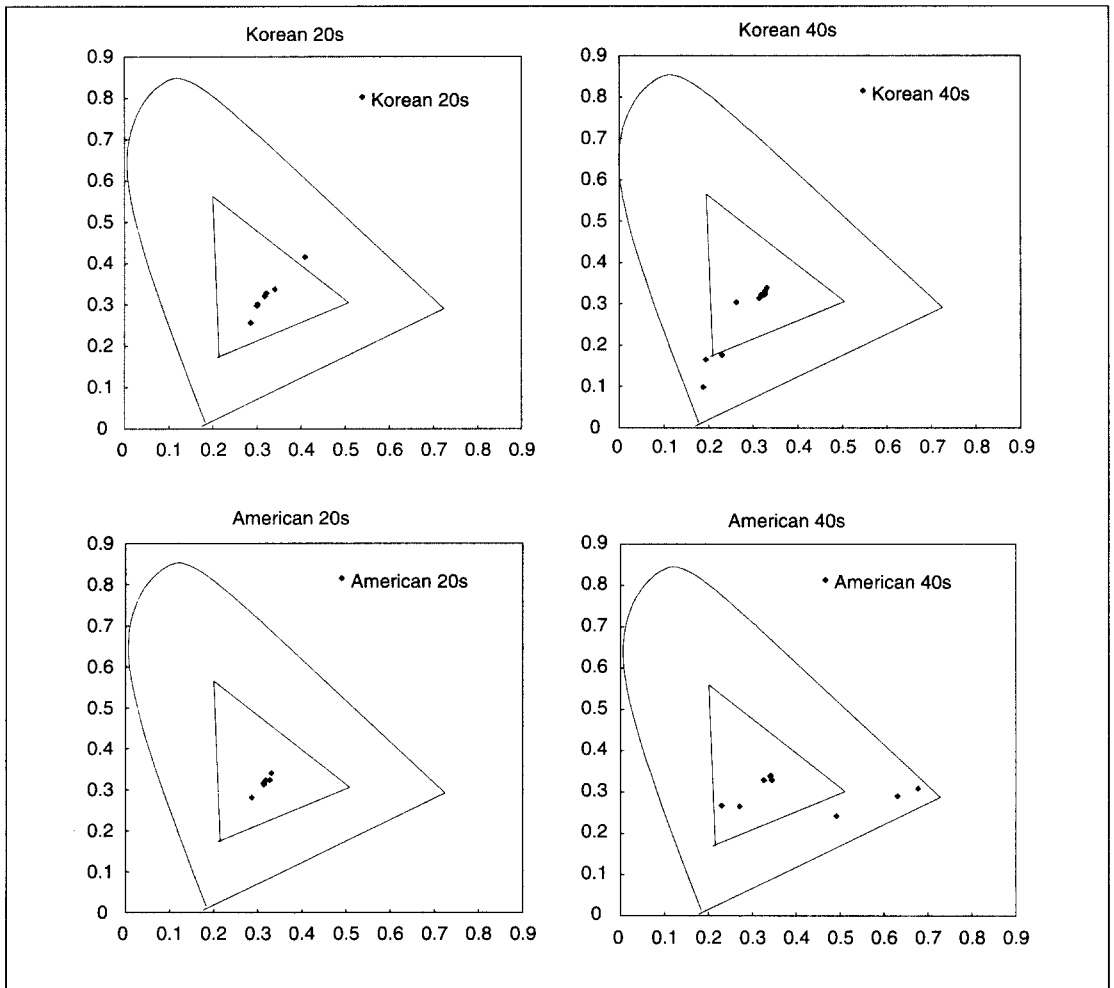


Fig. 3. Chromaticity Diagram of the most 10 "Liked" Fabrics across Different Population Group

I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1. 한국 20대와 미국 20대는 한국 원단을, 한국 40대와 미국 40대는 미국 원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중 미국인들의 선호 경향이 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위와 같은 현상은 양국 원단이 지니고 있는 기초 물성과 색상, 조직, 패턴 등의 여러 기능적, 미적 요인에 대해 소비자가 복합적으로 인지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겠으나 대체로 20대는 무채색 계열의 가라앉은 색상을 선호하는 반면 40대는 무채색 계열과 함께 순색 계열의 비교적 화려한 색상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령별 차이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각각 연령별로 구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한국인은 멜란지계의 색상을 solid계 못지 않게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20대와 달리 40대는 여러 색상의 실로 짜여진 체크패턴을 좋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색상에 비해서는 미약한 차이이지만 원단 조직의 경우 미국인은 니트원단을 정장용 원단으로 선호하고 20대는 40대에 비해 보다 콤팩트한 조직으로 짜여진 원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단들은 색상이나 조직, 두께 등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생활 속의 원단'들이었기 때문에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중추적인 분야인 의외류업종에 있어서 소재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섬유, 실의 구조, 원단 조직, 염색, 가공 등의 조합에 의해 얻어지는 소재의 종류는 실로 무한하므로 생활 속의 원단들을 실제의 연구에 이용하는 시도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향후의 연구방향으로서 의외류 아이템별로 매 시즌에 사용된 혹은 사용될 소재군을 나눈 후 이를 여러 연구자들이 나누어 공동의 프로젝트로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

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비단 정장류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연령층을 막론하고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캐주얼 의류 분야에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의류학 분야 내에서의 학제간 연구는 물론, 산학의 연계에 의한 활용도 높은 연구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미약하나마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움직임에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영(1999). 미국거주 한국인의 미국상점 환불제도하의 의복구매 행동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3), 361-372.
- 김영인 · 고애란 · 홍희숙(2000). 의복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4(1), 3-14.
- 김춘정 · 나영주(1999). 견적물의 태와 감성 차원의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연구: 넥타이용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6), 898-908.
- 나영주 · 정혜원(1999). 여름철 남녀 내의의 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6(2), 186-195.
- 박은주(1998).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 신상무 · 류미령(2000). 국내 및 수입 브랜드 골프 웨어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따른 구매 집단별 제품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4(5), 772-783.
- 안춘순(1996).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 using the documentary evidence. *한국의류학회지* 20(1), 76-86.
-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섬유시험방법.
- 이미경 · 류숙희(1998). 에어로빅복의 소재 차이에 따른 착용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16-126.
- 이순홍 · 손희정(1994). 소재가 복식디자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 8, 185-216.
- 이승희 · N. Stanforth · S. Lennon(1999). 미국 의류 점포 내에서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지각. *한국의류학회지* 23(8), 1170-1181.
- 이은주 · 조길수(2000). 블라우스 직물의 소리 특성과 태. *한국의류학회지* 24(4), 605-615.

- 이정순·신혜원(2000). 인조피혁의 촉감과 평가. 한국의 류학회지 24(2), 277-285.
- 이정욱(2000). 원산지와 의류 상표자산가치가 소비자의 의류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663-674.
- 한국섬유공학회(1992). 섬유제품의 시험 및 분석기술. 한국섬유공학회와 한국의류시험검사소 주최 산학협동 강좌 10.
- 정원규·장두상·서보영·박상주·조인술·조규민(1997). 염색학. 형설출판사.
- 주은희(1997). 90년대 전반기 패션디자인의 특성. 279-307.
- 차은정·박혜선(2000). 여고생의 상표선호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4), 487-497.
- 최미성(1999). The preferred style of bicycle apparel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국의류학회지 23(5), 684-693.
-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Kassarjian, H. H.(1977). Conte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8-18.
- Paoletti, J. B.(1980). The role of choice in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A case study, 1875-1885. *Dress* 6, 47-56.